

코로나바이러스-19 가 연합감리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코로나바이러스-19 전염병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대응과 관련해서 세 가지 설문조사를 행했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3 월 25 일부터 3 월 29 일까지 961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4 월 20 일부터 4 월 24 일 사이에 972 개의 교회가 참여했다. 세 번째는 6 월 9 일부터 6 월 14 일까지 1,016 개의 교회가 참여했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연구팀은 앞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조사에 응했던 이전 교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 초대가 보내졌다. 그러나 이것은 편의상의 샘플로서 연합감리교회 전체를 모두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설문 응답자 :

응답자 프로필은 처음 두 설문조사는 매우 유사하지만 세 번째 설문은 약간 다르다. 가장 최근 설문에서, 평균 출석률이 50 명 미만인 교회는 더 적어졌고 50 명에서 249 명 사이의 교회가 더 많아졌다. 최근의 응답자 그룹은 도시가 많아졌고 교외는 적어졌다.

이 설문조사는 2 교회 이상 담임하는 목사들에게 그중 큰 교회를 대표해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요청했다. 전체적으로 세 표본 모두에서 작은 교회들이 좀 더 적게 대표되었고 큰 교회는 더 많이 대표되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설문에 응한 교회는 시골과 소도시에 있는 교회이다.

평균 출석 인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0 명 미만	34%	34%	30%
50~99 명	29	28	31
100~249 명	23	24	26
250~499 명	8	8	8
500 명 이상	6	5	5

조사에 응답한 지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골	31%	30%	29%

소도시	35	34	35
교외	22	25	21
도시	11	10	15

연합감리교회의 지역총회별로 응답한 교회의 비율은 재무재정협의회 통계보다 서부지역이 11%로 더 많으며, 중남부 지역은 14%로 더 적었다.

지역총회	2 단계	3 단계	재정재무협의회 통계
중북부	20%	22%	21%
동북부	21	21	21
중남부	16	14	17
동서부	31	33	35
서부	11	11	5

개요:

초기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5 가지 주요 트렌드는 이번에도 계속되었다.

1.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목회자의 태도는 계속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응답자 중 66%는 두 번째 설문조사의 43%에 비해 현재 자신을 희망적이라 설명하고 있다.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28%에서 49%로 현격히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교회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백인이 아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백인 교회의 목사들보다 특히 “축복”(76%), “희망”(71%), “격려”(55%) 및 “영감”(42%) 등의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교회의 재개와 관련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을 불안하다고 말한 목회자의 비율은 12%에서 35%로 증가했고, 자신이 소진되었다고 말한 숫자는 20%에서 32%로 증가했다. 큰 교회의 목회자는 불안과 소진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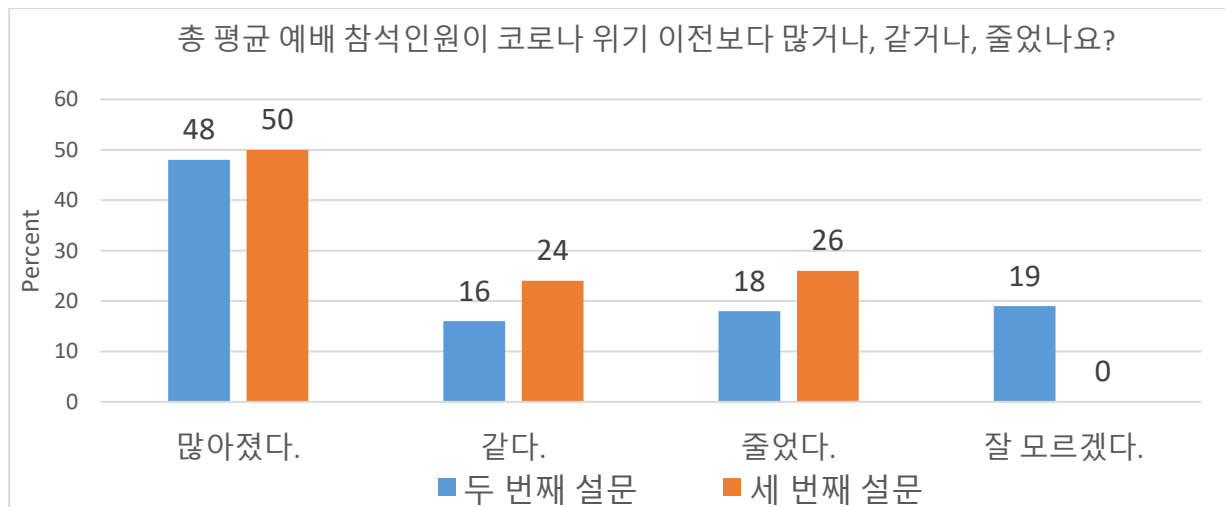
두 번째 설문 긍정적	두 번째 설문 부정적	세 번째 설문 긍정적	세 번째 설문 부정적
희망, 43%	불확실, 22%	희망, 67%	불안, 35%
평온, 34%	소진, 20%	축복, 63%	소진, 32%
회복, 28%	스트레스, 13%	회복, 40%	좌절, 28%
격려, 26%	불안, 12%	격려, 33%	분투, 18%

영감,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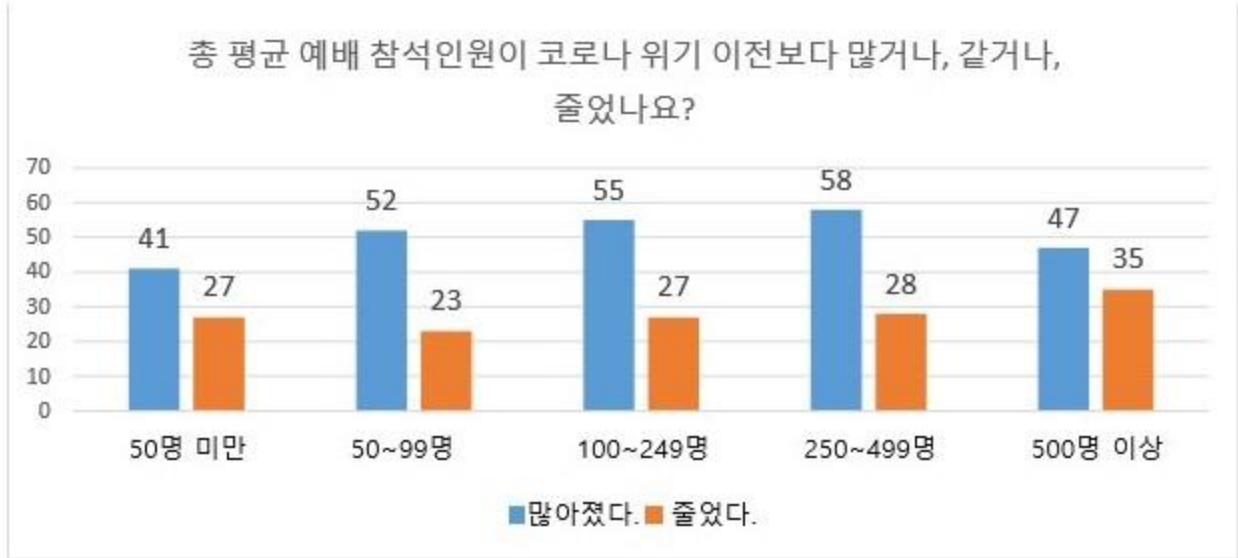
2.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설문 참가자들은 평균 예배 참석률이 높고 최근 재정 상태가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목회자의 42%는 “전염병이 그들의 교회의 활력을 높였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19%는 동의하지 않았다.
3.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 비해 20% 이상의 헌금이 감소한 교회의 비율은 첫 설문조사에서 66%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12%로 감소하면서 교회에 기부가 계속해서 증가했다.
4.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 중 누구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응답한 교회 중 22%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인이 있었다.
5.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서 22%의 교회가 예배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재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균 예배 출석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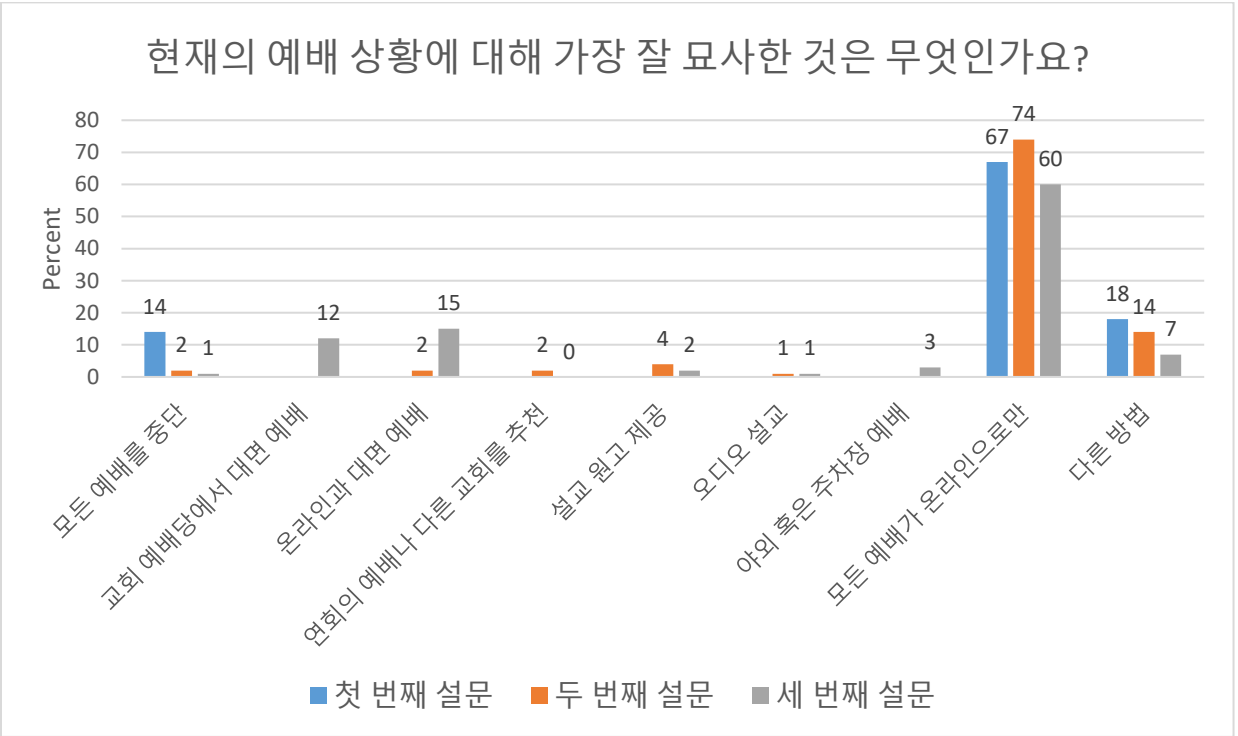
첫 번째 설문조사는 평균 예배 참석인원의 변화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절반인 50%의 교회가 출석 인원이 늘었다고 응답했지만, 26%는 줄었다고 말했다. 총 출석 인원은 온라인 출석과 직접 출석이 합쳐진 것이다. 출석이 줄었다고 말한 교회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이전에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줄었다”를 선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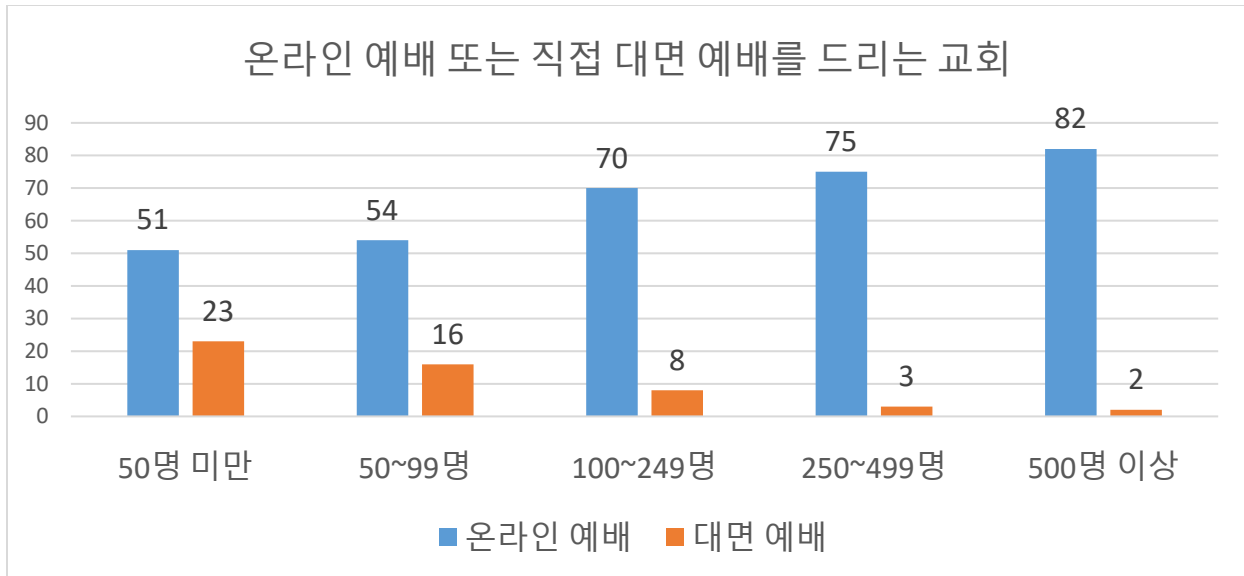
50 명 미만의 교회는 평균 출석률이 일정하지 않아 출석률이 높아지는데 더 어렵다고 보고했다.



교회는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출석률이 높아졌다. 현재 교회의 60%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약 12%는 대면 예배를 드린다. 약 15%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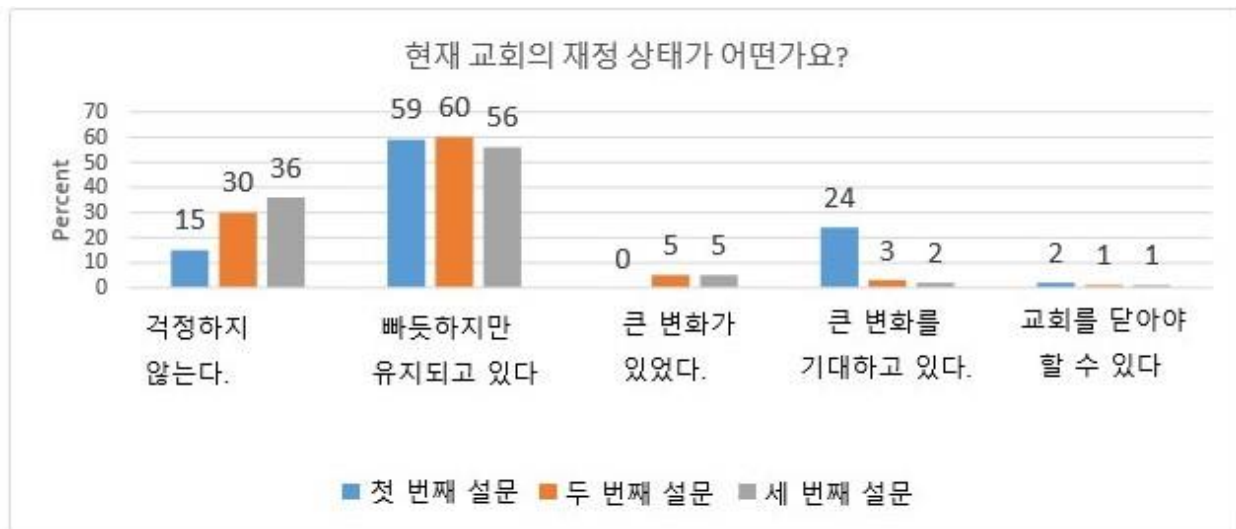


작은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가능성이 높다. 도시와 교외에 위치한 더 큰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유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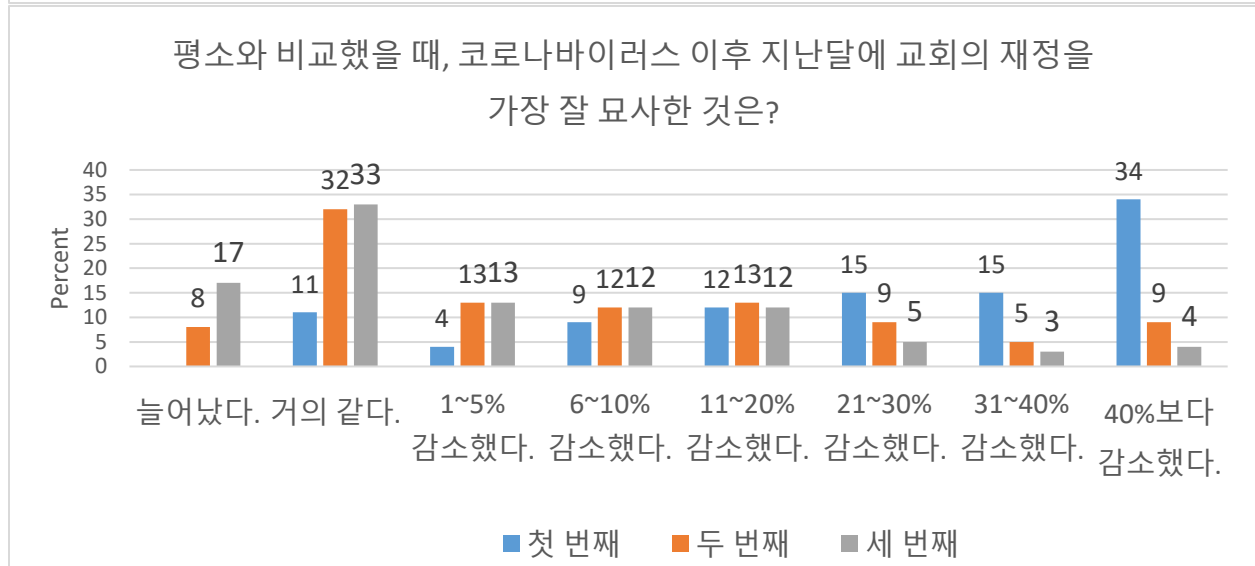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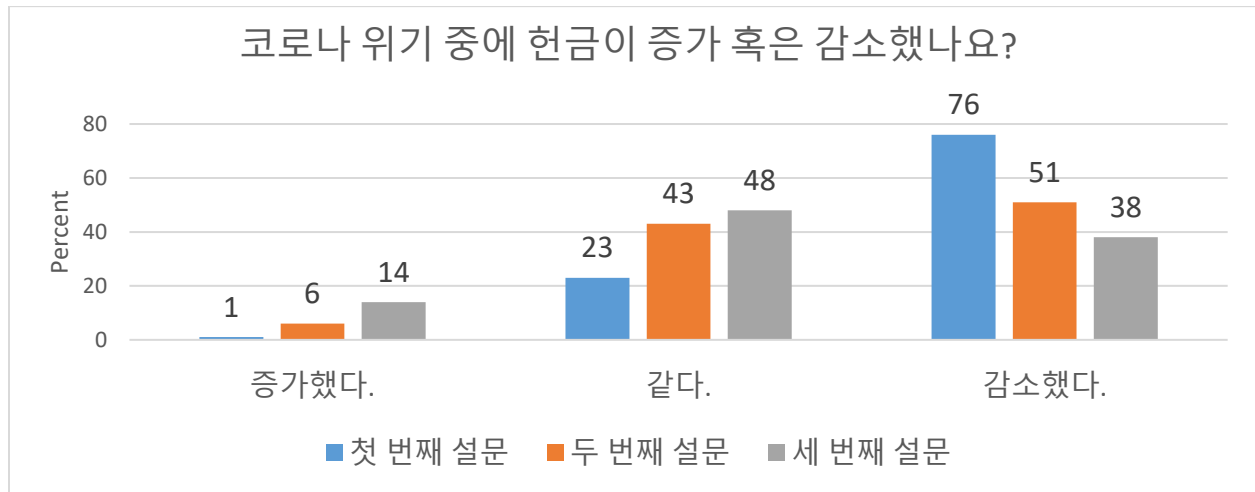
교회 재정 상태 :

연합감리교회들은 재정 상태에 대해 낙관적이다. 재정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교회의 수는 두 번째 30%에서 36%로 증가했으며, 큰 변화가 있거나 예상되는 교회의 수가 지난 설문에서 24%에서 이번에는 7%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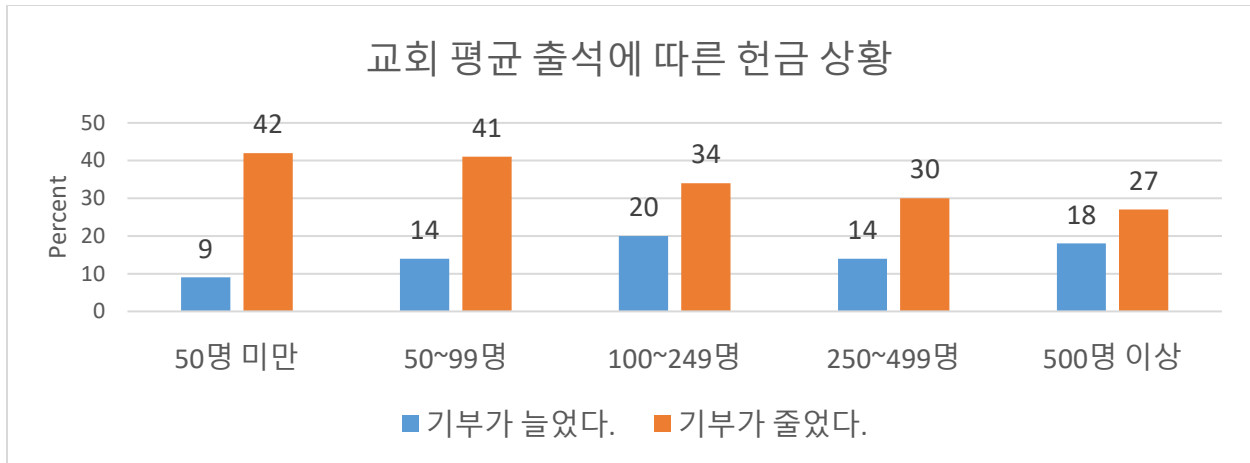


첫 번째 설문조사 이후로 헌금은 계속 증가하였다. 그 당시 재정이 어렵다고 말한 76%의 교회가 두 번째에서 51%로 줄었다. 세 번째에서는 38%로 떨어진다. 코로나 위기 동안 전반적인 헌금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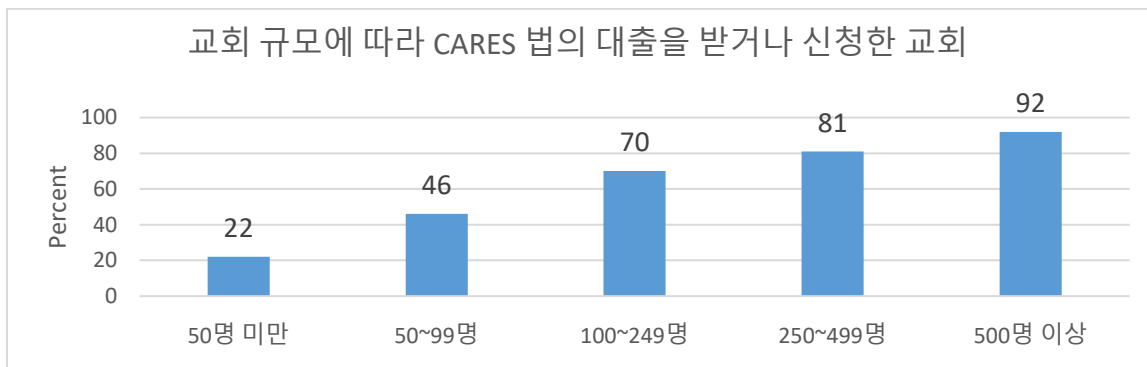
두 번째 설문에서와같이 헌금이 20% 이상 감소한 교회는 더 적어졌다. 20% 헌금이 줄었다고 말한 교회가 3 월에는 64%, 5 월에는 23%였지만, 이번 달은 단지 12%만이 그러했다.



여전히 교회 재정 상태는 일정하지 않다. 헌금의 감소는 250 명 미만이 참석하는 교회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작은 교회, 특히 100 명 미만 교회가 자동 결제(ACH), 신용카드 및 온라인 헌금이 가능하지 않기에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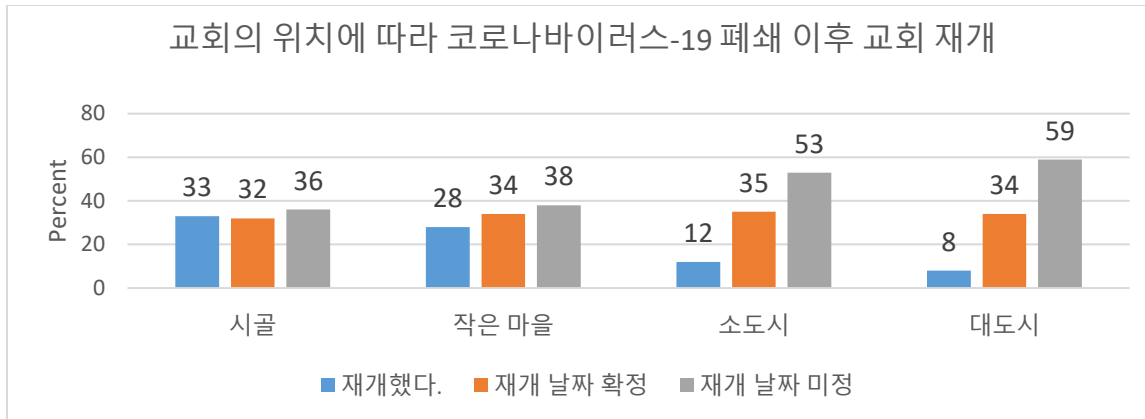


CARES 법은 또한 교회 재정에 영향을 끼쳤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회의 절반, 주로 중대형 교회가 CARES 대출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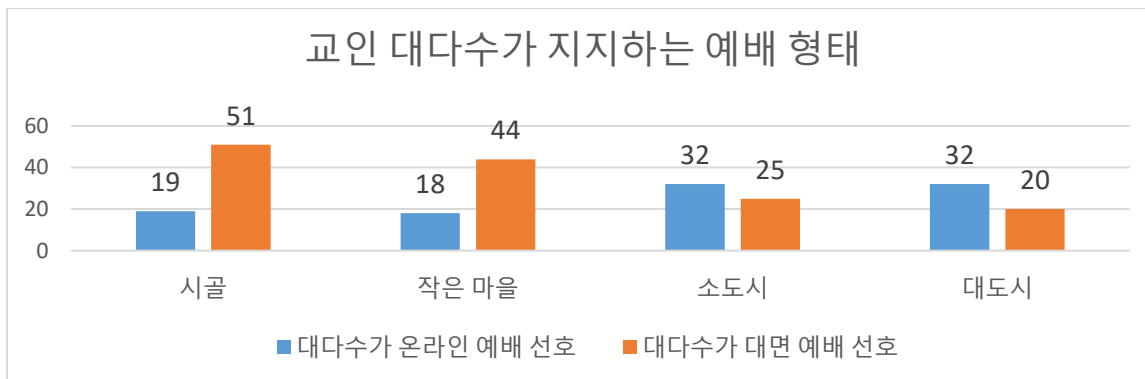


교회의 대면 예배 재개:

코로나바이러스로 대면 예배가 강제적으로 중단된 이래 약 23%의 교회가 재개했다. 시골 교회와 작은 마을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대면 예배를 재개하지 않은 교회의 경우,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6 월이 37%, 7 월이 32%, 8 월이 9% 그리고 9 월이 7%이다. 10 월 후반에는 2%이며, 13%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농촌 및 시골 지역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교인이 대다수이지만, 소도시 및 대도시 지역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을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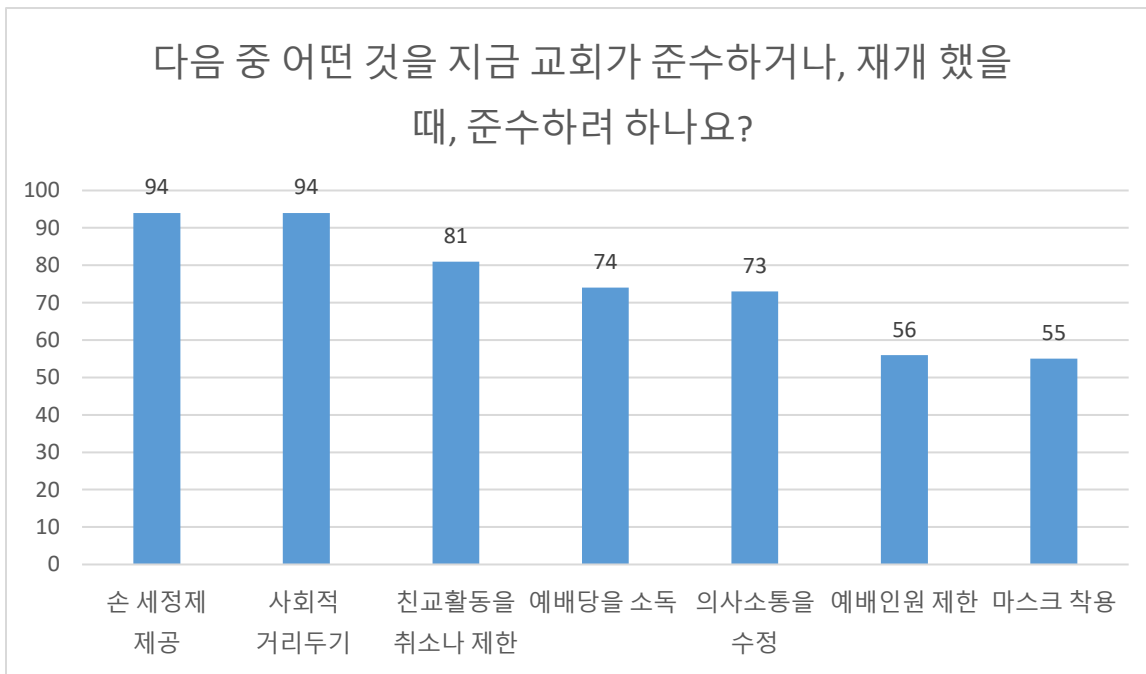
감독들과 연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재개할지의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91%가 감독과 연회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재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 답했다. 주 정부의 명령, 감리사의 지시 및 교인들의 의견도 결정을 내릴 때 고려된다. 그러나 농촌 및 소도시의 교회는 인구가 많은 지역의 교회보다 교인들의 의견을 강조할 가능성이 더 높다.

교회를 재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데 다음 중 중요한 요인은?

결정을 위한 잠재적 요건들	%가 중요한지
감독 또는 연회 지도자의 지시	71%
감리사의 지시	58
주지사 명령	58

지방 정부의 명령	47
교인들의 의견	47
지역 교회 임원들	46
국가 공인 의사의 권고 사항	45
지역 의사의 추천	35
사용 가능한 백신 부족	31
연방 정부의 지도자	18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8

교회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면 교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한다. 규모와 위치에 따라 교회 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더 큰 교회는 예배 인원의 제한을 고려할 가능성이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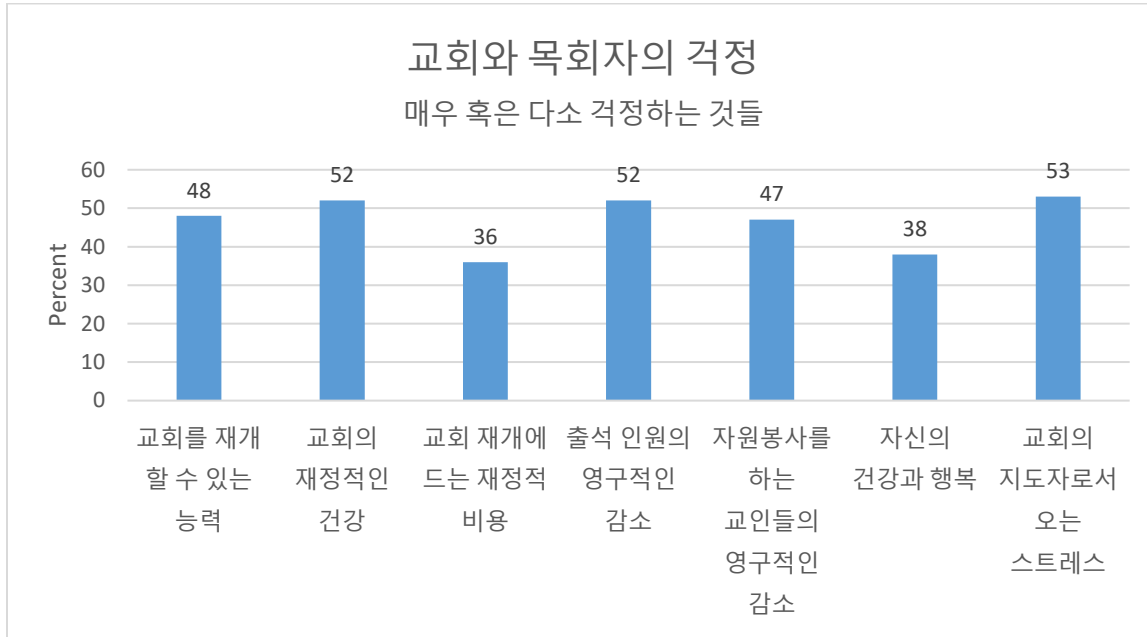


다른 교회 활동:

코로나바이러스-19의 대유행은 교회의 소그룹 및 기타 활동에 계속 영향을 미쳐왔다. 예배를 재개한 교회 중 9%만이 모든 연령대의 소그룹을 시작했고, 추가 14%는 어른들 소그룹만 재개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에는 교회의 3%만이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교회의 걱정:

목회자들은 교회가 재개하거나 필요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우려를 표명한다. 교회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완전 디지털로 전향하는 교회의 움직임: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실무진들은 “디지털 교회”로 돌아서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는 교회의 숫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1,000 개의 교회들 중 단 2 교회만이 온라인 교회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1%인 10 교회가 그러한 옵션을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 밝혔다.